



친주교 서울대교구 복식동성당

평화의 모후 & 14동작 지구 대표 본당

박규흠 베네딕토 지구장 신부님 임현호 도미니코 환경사목 신부님
유인창 안사노 주 임 신부님 정 엘리자베스 수녀님(원장)
김한술 도미니코 부주임 신부님 박 마리아사약 수녀님(전교)
박재준 브루노 보좌 신부님 서 다비드 수녀님(유치원)

성당 사무실 : 816-2961

평화의 쉼터(봉안시설) : 816-2919

영수유치원 : 816-2964

연령회 회장 : 010-9243-0588

□ '국경 없는 의사회' 홍보



이번 주일 2차 헌금은 '국경 없는 의사회'를 돕기 위한 모금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 7시 미사와 주일 아침 6시 미사, 9시 미사, 11시 교중미사 공지사항 시간에, 김서은 베로니카님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 홍보와 후원자 모집을 위한 말씀을 들려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6 중고등부 주일학교 여름행사

흑석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7월 24일(금)부터 7월 26일(일)까지, 경기도 연천에 소재한 '새동지마을'로 여름캠프를 떠납니다.

- 7월 26일(일) 10시 중고등부 학생미사는 본당에서 봉헌되지 않습니다.

□ 2026 유초등부 주일학교 여름캠프(고학년)

- * 일시 : 8월 10일(월)-8월 12일(수)
- * 장소 : 인천 강화 일만위 순교자 피정의 집
- * 대상 : 10세-13세
- * 비용 : 100,000원
- * 접수 : 우측 QR코드로 신청
- * 문의 : 윤유승 라파엘 (010-4063-9802)



2026 여름캠프

□ 견진성사 사진 찾아가세요

지난주부터 5월 10일(일)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께 사진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견진자들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단체사진과 선물을 수령해 주세요. 개인사진은 문자로 링크와 비번을 보내드렸으니, 직접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본당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 카나회(혼배 꽃꽂이) 봉사자 모집

혼인성당을 예약하시는 분들이 급증한 관계로 봉사하실 분들(30대에서 40대까지)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면 그만큼 보다 아름다운 결혼식을 꾸밀 수 있습니다~ Love~

□ 회합과 모임

※ (대)대성전, (교)교육관

모임단체	일시	장소
여성 5구역	26일(일) 9시미사 후	(교)302호
남성 1구역	26일(일) 교중미사 후	(교)307호
남성 2구역		(대)3회합실
남녀 8구역		(교)303호
요셉회		(대)4회합실
M.E.		(교)301호
여성 3구역	28일(화) 10시미사 후	(교)204호

김시희금

문윤희

이송숙

교무금 내신 분

강경화	김미향	김종숙	민경석	서병옥	오현석	이도근	이영홍	임종택	주금례
고도남	김선태	김종해	박경애	석왕수	온진무	이리호	이윤실	임혜련	최용희
곽지우	김송지	김종강	박경희	설정란	우미선	이미란	이정민	정근창	최윤자
권미연	김수연	김진형	박문희	손현선	유연심	이미자	이종숙	정순호	최은령
권태희	김연규	김철우	박선미	신경선	유윤중	이보련	이종윤	정애경	한수진
권혜은	김용준	김춘자	박성자	신추영	윤문수	이봉순	이주열	정혜린	황경임
김관영	김윤성	나재철	박소연	안종열	윤서영	이상열	이주현	조성애	황찬욱
김귀옥	김윤전	나종열	박숙희	양천희	윤승연	이송숙	이혜정	조영애	
김명옥	김은순	남궁걸	박옥희	오백교	이광호	이숙자	이호섭	조창열	
김미경	김재철	노금자	방미숙	오상연	이기월	이연자	임명규	조하나	

미사시간 / 성사안내

주 일	토요일 19:00 일요일 06:00, 09:00, 10:00(중고등부), 11:00(교중), 14:00(유초등부), 19:00(청년)					
	월	화	수	목	금	토
평 일	오전 06: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06:00 10: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06:00 10:00	오전 10:00
	사무실 ☎ 816-2961 매주 월요일 휴무 팩스 ☎ 817-5933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식로13길 3(06910) https://bstsd.or.kr		유이세례 매월 첫째 일요일 15:00 주모미사 매월 둘째 토요일 10:00 혼인미사 매월 둘째 일요일 15:00(2개월 전) 미사지향 희망 일자 전날 17:00 마감(방문접수) 무료법률상담 성당 사무실로 전화신청(본당교우 限)			

연중 제15주일 회금	7,959,300원	교 무 금	9,090,000원
베네수엘라 지진 구호 2차 회금	5,242,300원		

[WYD]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와 ‘성 요세피나 바키타’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St. Frances Xavier Cabrini, 1850-1917)



“예수님을 모르거나 잊어버린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성인이자 이민자들의 수호성인인 성 프란체스카 카브리니는 1850년 이탈리아 북부 산탄젤로 로디지아노 Sant'Angelo Lodigiano의 한 농가에서 1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그녀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세례성사를 받았고, 왜소하고 허약한 몸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또한 여섯 살 때는 이웃집 개에게 심하게 물려 트라우마도 안고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신심 깊었던 그녀는 열여덟 살에 우수한 성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땀습니다. 스무 살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수녀가 되길 원했지만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거절당했습니다. 잠시 교사로 일하던 그녀는, 1877년에 수녀가 되어 이탈리아 코도뇨 Codogno의 ‘섭리의 집 Casa della Provvidenza’ 보육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1880년에 섭리의 집 보육원이 운영상의 문제로 폐쇄되자, 그녀는 그 보육원 출신 여성 7명과 함께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 Missionary Sisters of the Sacred Heart of Jesus’를 설립했습니다.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는 5년 만에 7개 도시에 분원을 설립했고, 1887년에는 로마에 무료 학교와 병원도 세웠습니다. 1889년, 그녀는 동료 수녀 6명과 함께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소외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미국의 시민권까지 받게 됩니다. 허약한 몸에도 대서양을 약 30번이나 횡단하며, 미국·아르헨티나·브라질·프랑스·스페인에 수녀원·학교·병원·보육원 등 총 67개의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수많은 수도회와 자선기관을 세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그녀를, 사람들은 ‘마더 카브리니 Mother Cabrini’라 불렀습니다. 1917년 12월 22일, 그녀는 자신이 세운 기관의 수와 같은 67세에 말라리아로 선종했습니다. 마더 카브리니는, 작고 약한 몸으로 국경을 넘어 사랑을 실천했던 하느님의 선교사였습니다.

성 요세피나 바키타(St. Josephine Bakhita, 1869-1947)



“나를 납치했던 노예상들과 나를 고문했던 사람들을 만난다면,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손에 입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도,
수도자도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꽃’으로 불리는 성 요세피나 바키타는 1869년 아프리카 수단 Sudan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근심 걱정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일곱 살 무렵 아랍 노예 상인에게 납치되어 스무 살이 될 때까지 다섯 번이나 팔려 다니며 온갖 폭행과 학대를 당했습니다. 납치의 충격으로 부모님이 지어준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렸고, 노예상들은 그녀에게 ‘바키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키타는 아랍어로 ‘운이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주인들은 소유의 표시로 칼로 살을 파고 소금을 뿌려 표식을 새겼고, 그녀의 몸에는 144개의 흉터가 남았습니다. 스무 살에 이탈리아에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그녀는 세례성사를 받고, ‘카노사 애덕의 딸 수녀회 Canossian Daughters of Charity’에 입회했습니다. 수녀원의 문지기, 요리사, 성구 관리 등 소박한 소임을 맡으며 겸손하게 살았고, 늘 친절하고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단순하고 겸손한 삶에 매료되었고, 그녀를 ‘검은 피부의 어머니 Our Black Mother’라 불렀습니다.

말년에는 통증을 동반한 병으로 고통받으며 휠체어에 의지했지만, “몸은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늘 “주님 뜻대로!”라고 답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1947년 2월 8일, 그녀는 78세의 나이로 선종했고,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매년 이날을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세계 기도와 성찰과 행동의 날’로 기념합니다. 성 요세피나 바키타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찾고, 세상이 준 사슬을 용서로 끊어낸 하느님의 종이였습니다.